▶▶ 매일 INDEX

11면
글로컬캠퍼스 설립 첫 발걸음

전주매일

2024년 3월 25일 월요일 (음 2월 16일) 제3471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전북자치도 역점 RIS 추진 '순조'

〈지역혁신사업〉

미래수송기기 등 핵심 과제 공모 결과 150건 접수
기업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인력양성 · 기술지원
도정 부합성 등 검토… 내달 19일까지 과제 선정

전북특별자치도가 역점 추진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이하 지역혁신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지역혁신사업은 지자체와 대학간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지방대학의 혁신'을 통한 '지역혁신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기업이 실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고 연구개발 과제를 추진하는 데 의미가 있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지역혁신사업을 통해 3대 핵심산업으로 선정한 △미래수송기기 △에너지신산업 △농생명바이오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도내 관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그 일환으로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2024년도 지역혁신사업 핵심분야 과제를 공모한 결과 총 150건이 접수돼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분야별로는 미래 수송기기 49건, 에너지신산업 49건, 농생명바이오 52건 등이다.

이번 핵심과제 공모의 주제는 기업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인력양성 및 기술지원 분야다.

세부적으로 △현장맞춤형 핵심 인재를 양성해 지역기업에 공급하기 위한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기존 산업을 혁신할 수 있는 소·부·장 핵심기술 제품고도화 및 상용화(제품개발) 기술지원 △보유 핵심기술의 부가가치 미래산업 창출(창업 및 신산업 아이템) 발굴·육성 등이다.

도는 공모기간 동안 교수 개인연구가 아닌 실제 기업이 도움이 되고 도정 발전방향과 부합된 과제가 발굴될 수 있도록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노력했다.

먼저, 공고 시작 전인 지난달 20일 미래산업국, 농생명축산식품국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핵심분야 관련부서가 과제발굴에 적극 참여하도록 했다.

이후 지난달 29일에는 도청 공연장에서 도 팀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와 전북대 컨벤션센터에서 300여명의 대학교수 및 교직원, 기업,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RIS 공모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이차전지, 바이오, 농생명 분야 등 관련 부서에서 직접 도정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또한 민선8기 전북자치도가 운영중인 1기업-1공무원 제도를 통해서 약 5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RIS 핵심과제 공모'를 홍보해 도내 많은 기업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도는 접수된 과제를 대상으로 '도정부합성', '기존 과제와의 중복성' 등을 사전 검토할 계획이다.

이후 JB지산학협력단 주관으로 과제평가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하는 등의 공정한 절차를 거쳐 4월 19일까지 접수된 150건 중 40개 내외의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나해수 전북자치도 교육소통협력국장은 "지역혁신사업은 지자체 주도로 지역발전방향, 지역산업육성방향과 연계해 인력양성-기업유치-취·창업-지역정주로 이어지는 지역발전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도 산업발전 방향과의 적합성 등을 면밀히 살펴 실제 지역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과제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지난 22일 전북특별자치도청 로비에서 열린 2024 년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에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청원들이 물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모두의 물절약 실천 동참을 위한 열린 캠페인을 진행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3월 22일 세계 물의 날'… 도내 곳곳 행사 다채

전북자치도, 청사 1층 로비서 물환경 사진전… 29일까지
전북환경청 등과 환경정화 · 전북물포럼 킥오프 회의 등

전북특별자치도는 3월 22일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해 물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모두의 물절약 실천 동참을 위한 캠페인, 사진전, 하천정화활동, 물포럼 회의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계 물의 날은 물의 소중함을 알리고 물 부족, 수질오염 방지 등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세계 각국의 관심과 협력 증진을 위해 지난 1992년 제47차 유엔(UN)총회에서 매년 3월 22일을 지정해 선포한 날이다.

국내에서도 지난 1995년부터 정부와 지자체, 관련단체에서 '세계 물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도심과 하천정화 작업을 비롯 다양한 캠페인과 행사를 진행해 왔다.

올해 UN주제는 '평화를 위한 물의 활용'(Leveraging Water for Peace)이며, 국내주제는 UN주제의 키워드를 반영해 "함께 누리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이라는 주제로 모두의 실천과 지속가능한 물관리로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전북자치도에서는 지난 22일 전북자치도 청사에서 물의 날을 홍보하고 물의 소중함을 알리는 물절약 캠페인을 청원 대상으로 실시했다.

22일부터 29일까지는 청사 1층 로비에서 청사 방문객 대상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수자원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는 물환경 사진전을 개최한다.

또한 전북지방환경청, 완주군, 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완주 상관면 소재 전주천변에 방치돼 있는 생활쓰레기 등을 수거하는 정화활동을 실시한다.

한편, 27일에는 전북지역 물 현안에 대해 민·관·학 전문가들이 모여 소통하는 전북물포럼 킥오프회의 행사를 개최, 2024년도 전북 물포럼 주요 아젠다 논의 및 운영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내 각 시군에서도 유관기관 등과 함께 만경강, 진안천, 섬진강 등에서 환경정화활동을 추진한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인류에게 꼭 필요한 수자원의 중요성을 도민 모두가 재인식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며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 중 하나이므로 물의 가치에 대한 인식 증대를 통해 미래세대도 깨끗하고 안전한 물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물 절약 실천 등 경각심을 높이는데 더욱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김재훈 기자

도내 총선 10개 선거구 '출사표'

민주 · 국힘 · 새미래 · 진보 · 무소속 등 총 34명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 5명 후보자 등록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일이 지난 21일과 22일까지 이틀에 걸쳐 마무리됐다. 이번 총선에는 총 9개 정당(무소속 포함)이 전북특별자치도 10개 선거구에 후보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자 명단 3면〉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후보자 접수등록을 마감한 결과 총 9개 정당(무소속 포함)에서 총 34명의 후보가 후보자 등록을 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10명, 국민의힘 10명, 새로운미래 3명, 진보당과 자유통일당이 각각 2명, 녹색정의당과 자유민주당·한국농어민당이 각각 1명씩 후보를 냈다. 무소속도 3명이 등록했다.

선거구별로는 전주시갑 선거구에는 4명, 전주시을 5명, 전주시병 3명, 군산·김제·부안 갑 2명, 군산·김제·부안 을 3명, 익산갑 4명, 익산을 3명, 정읍·고창 3명, 남원·장수·임실·순창 4명, 완주·진안·무주 2명 등이다.

이와 함께 전북에서 함께 치러지는 광역·기초의원 재·보궐선거에는 5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광역의원에는 전주시 제3선거구에 2명, 남원시 제2선거구에 1명이 등록했으며, 기초의원은 장수군 가선거구에 2명이 등록했다. /뉴시스